

【2019년도 인사 ~ 재해에 강하고, 여성이 활약하는 조직으로 ~】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오카야마시의 2019년도 인사이동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가 적다」라고 불려왔던 오카야마가 작년 7월 호우재해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재해 대응의 경험을 교훈으로 앞으로의 준비를 단단히 굳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년에는 「재해에 강하고 안전, 안심하는 오카야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집행 체재를 구축하고 시정의 중요 과제에 대응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인사배치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위기관리 부분으로는 위기관리 담당국장 포스트에 7월 호우 재해에 관한 과제 추출, 검토를 중심으로 정리해 온 현 총무국장을 등용하는 외에 3명의 관리직에 도로, 하수도하천 보건복지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5명을 증원하는 등의 체제 강화로도 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의 중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지원학급 증가에 대한 대응 (45명 증가), 예술 창조 극장 (가칭)의 정비 (담당 과장의 배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건 복지의 충실 (5명 증가) 등의 진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직원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입니다.

신년도는 오카야마 최초의 여성 구청장을 기타 구청에 배치하는 등

시민 협동 국장, 오카야맛코 육성 국장에 여성을 등용해 지속 보육, 유아교육 담당국장 등 지금까지 최대 2 명이었던 여성 국장과 구청장을 한번에 4 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4 명 늘어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제가 시장 취임 직후인 2014 년 6.5%였던 것이 12.7%로 매년 약 1%씩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국 경영자 협회 회장인 바바라 판사가 「여성이 혼자서는 이단이다. 2 명 있으면 조금 낫지만 3 명이 되면 『여성』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썼던 기사를 떠올려, 지금까지 여성이 당연하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고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원이 성별과 관계없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살려 활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오카야마시의 과제 해결과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